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신 예수님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5)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 밖에 없다는 독자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 관계를 가진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18절에서 독생하신이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in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Father)”라고 표현 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잃지 않고 신성을 가진 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이다. 천사가 마1:23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씀 곧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을 때, 신성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 요한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존파이퍼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라고 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I.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예수님의 3제자.

요한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때 그의 놀라운 경험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3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보았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

려워하니”(마 17:1-6).

같은 장소에 있었던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그의 서신 서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 셴느니라”(벧후 1:16-17)

신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그 신성을 감추시고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으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과 변화 산상에 올라 가셨을 때는 그 놀라운 신성의 영광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 세자들은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 너무나 황홀하고 좋아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였다. 그 영광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누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가 별세할 것을 이야기 하였다(누가복음 9:31)고 성경은 말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 주시라고 기도했다(요한복음 17:1). 그것은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들어내 주시라는 의미이다.

Ⅱ.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세제자들의 삶

이 영광을 본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의 삶은 어떠했는가? 사도들 중에 특히 이들의 삶이 두드러지게 성경에 나온다. 야고보는 일찍이 순교 했다. 요한은 밧모섬이라는 아주 뜨거운 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요한 계시록을 썼다. 그곳이 너무 뜨거워서 계란을 놔두면 금방 삶은 계란이 되었다고 한다.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그 추종자들을 없애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3천명, 오천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역을 맡았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주역을 감당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

Ⅲ. 우리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만 그 영광을 본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육체적인 영광이 아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말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은 주로 영적인 영광이다. 영적인 아름다움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 아니고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이다. 엡 1:18을 읽어보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4: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은 요한이 요한복음 1:14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4:4절과 요한복음 1:14절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영광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요한복음 20:29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

존파이퍼는 헤르만 리더보스의 요한복음 주석서에서에 다음 같은 내용을 인용 했다.

“성육신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류 가운데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연 설명한다면 전체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명해 준다. 그의 충만한 영광의 증거, 영광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들어났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이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과 행함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죽고 부활하셨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기록을 읽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졌다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 14절 끝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다. 그의 충만 함이란 무진장하고, 은혜의 파도가 흘러넘치고, 영원하며 결코 매마르거나 썩지 않는 것이다. 그의 충만 함은 신성의 충만 함이다(골 2:9) 이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나 역시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일이 수 없이 많이 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을 간증하고자 한다.

1977년 빌립보서 여름 수양회였다. 개혁의 아픔을 갖고 상처를 수습하는 어려움 가운데 위도에서 수양회를 갖게 되었다. 한 학사님의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합쳐 100명이 참석한 수양회였다. 4명의 개혁 동역자들이 빌립보서를 공동 연구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한 말씀이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많은 학생들의 영혼을 강타했다. 그래서 처음 참석했을 때 설교가 길다고 불만을 하던 학생들까지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의 간증들을 했다. 그 중에도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3여학생들의 소감 발표였다. 그들이 아들이 없는 딸만 6명 이상 있는 가정에서 자란 공통의 아픔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깊은 형제애를 나누었다.

또한 사건은 기도할 때 경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학생 전도사역을 시작할 때, 장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 우리가 모여 합심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 했다. 15-6명의 학생 리더들과 함께 책상 주위에 모여앉아 기도를 시작하면 3시간 기도는 보통이었다. 책상은 주로 의자 4개 위에 두꺼운 베니아판을 올려서 급조한 책상이다. 기도하는 중에 졸다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통하는 소리가 들리기도하고 어떤 학생은 기도하는 중에 코를 고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기도를 마치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지붕이 들썩 들썩 하는 것 같았다.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학생들은 70년대의 암울한 시대에 캠퍼스개혁과 성서 한국 세계 선교를 힘차게 이루어갔다.

예배는 단순히 성경 수업을 하는 교실이 아니다. 신학을 강의 하는 신학교가 아니다. 도덕 강의를 하는 윤리 시간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토론장이 아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곳이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이 레이저 광선처럼 우리의 영혼 깊숙이 파고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게 한다. 이 영광을 보는 자는 더욱 거룩함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영광이 임하기 위한 예배는 기도가 필요하다. 존 오웬은 “믿는 자들을 달랜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방법중 첫째는 열심 있는 기도이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총만한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은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초자연 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된 예배, 총만한 은혜가 임한 예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 이와 같은 예배가 특히 우리의 한국의 교회에 회복 되어야 한다. 목사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이 뜨거운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총만히 임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부터 오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얼마나 축복된 예배인가? 나는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한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본문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한다.